

2015 국가 교육과정 전문가 포럼(1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 지침은 무엇인가?

주제발표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 지침은 무엇인가?

홍 원 표 연세대학교 교수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상의 주요 쟁점들

홍 원 표 연세대학교 교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책임자

1. 고등학교의 이중적 성격과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상반된 기대들

학제상 고등학교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고등'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것 같지만, 정작 학제상의 구분에서는 고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명칭을 고려하면 '고등' 교육에 가까울 것 같지만, 제도적·현실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은 중등교육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다. 이것은 명칭상의 문제를 넘어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이중적 성격과 밀접히 이어져 있다. 고등학교를 '고등교육' 기관에 가깝게 운영하느냐 아니면 '중등교육' 기관의 모습에 가깝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과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양자의 특성을 조금씩 포함하되, 구체적인 모습은 각국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학력주의의 전통이 약한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진학과 취업을 비교적 빨리 결정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연방에 속한 국가들 역시 명칭은 다르지만 11-12학년에서는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물론 이들 각국의 고등학교는 나름의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그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나 독일 등이 교육과정 표준화를 추구하거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고등학교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것 등은 고교 교육과정의 유동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의 국가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고교 교육과정을 대학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차, 7차 교육과정 이후 고교 교육과정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교과 교실제, 선택중심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의 다양화 등이 여전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시제도, 학교 시설, 교원 양성 및 인사 제도, 학교 문화, 평가 체제 등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Tyack과 Cuban((1995)의 논의를 빌면, 교육과정이 학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과정 자율성의 확대가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성격의 이중성과 더불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것의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David Labaree(1989)에 의하면 미국의 고등학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학교나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립이 어려운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입장을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일부 재해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이나 서열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통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 간 차등이나 학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 2)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의 실용성이나 진로·직업 교육의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 교육과정 보다는 학생의 진로나 직업에 따라 계열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내용 역시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 3) 사회적 신분이동(social mobility)은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열망하는 개인들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 입장은 개인들의 이기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나 균형 잡힌 교육과정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욕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위 세 가지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두 가지 입장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사교육비 절감으로, 사실 사교육비 절감이 공교육 정책의 목표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EBS와 수능의 연계처럼 공교육의 내적 논리보다는 사교육비의 억제 유무가 고교 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지막 목소리는 각 교과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해당 교과의 비중이 커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부 교과 관련자들은 해당 교과의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는 것은 특정한 입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상을 가급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들 상반된 입장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분명히 할 점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상당히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수준 높은 지식과 기능, 윤리 의식과 동기를 갖춘 인재를 양성해 왔고, 이것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왔던 사실이다(Seth, 2002; Sorenson, 1994).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은 최근 들어 고등학교들 사이에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문제인 것이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이과 양분, 선택과목의 제한, 학교 간 격차, 낮은 학생 만족도 등은 특정한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른바 문이과 양분 체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문과와 이과라는 명칭은 국가 교육과정 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사용되는 용어 역시 다르기 때문에 공식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민용성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거의 모두 1학년은 마치고 2학년에 접어들 때부터 인문사회·자연이공 과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집중과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80% 이상은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일반고 학생들의 95%는 인문사회 혹은 자연이공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교육부, 2013a; 민용성 외, 2011).

이것은 마치 두 별의 옷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또한 대학의 전공이 3,500여 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조호제·김대석, 2013), 두 개의 진로집중과정으로, 그것도 거의 수학에서의 재능 여부로 학생들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민용성 외, 2011). 특히 예체능 계열의 대학 입학 정원이 14.5%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둘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선택 영역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문의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7차 교육과정은 고교 2-3학년에 배정된 136단위 가운데 최소 28단위는 학생 선택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였

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영역에 제시된 과목들은 한 학기에 하나씩 개설하면 일반고의 경우 더 이상 개설할 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역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 평가나 담당 강사 확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문과와 이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과정을 선택하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인 셈이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었다. 기존의 특목고 외에 자율학교가 도입되고, 각종 사업성 정책을 통해 예산이 분배되면서 거의 모든 학교가 고교 다양화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김양분 외, 2012; 조근주, 2012; 한혜정, 2012). 그러나 단기간에 추진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그 중에 특히 일반고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고의 학력 저하와 학습 분위기 저하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김홍주·김용호·김철중, 2013; 백병부, 2013; 위권일 외,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2013a)는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일반고에 불리한 차별적 교육과정 규정들을 없애는 한편,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고에 대해서는 기초 영역이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자사고는 이를 권장사항으로 남겨 두는 등의 일부 조치가 남아 있다.

<표 1>은 2013년 특성화고등학교(494개교)를 제외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유형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성화고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에서 일반고의 비중이 83.6%에 이르며, 자공고를 포함시키면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의 위기는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사고나 특목고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평등과 다양성의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할 점은 학생들의 낮은 행복감 혹은 학교생활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3a)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3.58이며, 학업 만족도는 2.81로 나타나고 있다. 2013 한국의 교육지표에 나타난 고등학생 관련, 혹은 좀 더 일반적인 교육지표와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표 1〉 전국의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유형	상세 구분	학교 수	소 계	비율
일반고	일반 1	1,389개	1,524개	83.6%
	일반 2 (종합고)	135개		
자율고	사립	49개	165개	9.0%
	공립	116개		
특목고	과학고	21개	135개	7.4%
	외국어고	31개		
	국제고	7개		
	예술고	27개		
	체육고	14개		
	마이스터고	35개		
합계		1,824개		100%

- 고등학생들의 역량 수준은 100점 기준으로 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역량이 95.2로 가장 높은 반면 진로역량 74.8, 창조적 역량 72.8, 긍정적 자아역량 60.2, 사회적 참여역량 36.3을 보이고 있다(pp. 53-54).
- 한국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행복감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 28).
- R. Florida가 개발한 글로벌 창의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참여국 82개 가운데 0.465로 16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스웨덴(0.808), 2위는 일본(0.766), 3위는 핀란드(0.684), 4위는 미국(0.666)이 차지하였다(p. 47).

위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업 성취는 높지만, 자존감이나 공동체 의식, 행복감, 창의성 등은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내용 지식은 높은 반면 학습 경험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려운 내용을 많이 공부시키지만, 토론하고, 참여하고, 만들어 보고, 발표하는 등과 같은 ‘고급스런’ 학습활동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내용 지식의 수준은 조금 낮추더라도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고교 교육과정의 개선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3.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향점

교육부(2014)는 지난 해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9월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년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 청사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특성화고 제외)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4, pp. 12-17).

-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 및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
 - 공통 과목: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
 - 선택 과목: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심화된 학습과 학생 진로를 고려한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
 - 일반선택 과목: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선택 수능에 해당하는 교과의 경우 수능 대상 과목으로 권장(5단위±2 증감)
 - 진로선택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기본이수 단위는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
- 특목고 대상 과목은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교과로 제시(일반고에서도 학생의 희망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전문교과 과목 개설 가능)
-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기초영역 교과(국·수·영·한국사) 이수 단위(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제한 규정 유지

<표 2>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과 이를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왜”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는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대표했다가 현재는 약간 후면으로 빠져 있는 ‘문이과 통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문과 혹은 이과는 교육과정상의 명칭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의해 만들어진 구분인 만큼, 그것의 통합도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황규호 외, 2015). 2013년 8월에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수능에서 이과생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문과생은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의 개선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교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 단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 단위	공통 과목(단위)
기초	국 어	10	기초	국 어	10	국어(8)
	수 학	10		수 학	10	수학(8)
	영 어	10		영 어	10	영어(8)
		한국사		6	한국사(6)	
탐구	사 회 (역사/도덕 포함)	10	탐구	사 회 (역사/도덕 포함)	10	통합사회(8)
	과 학	10		과 학	12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체육 예술	체 육	10	체육 예술	체 육	10	
	예술(음악/미술)	10(5)		예술(음악/미술)	10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 계		86(77)	소 계		94	
학교지율과정		94(103)	학교지율과정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총 이수단위		204	

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차 응시를 도입하는 일부 융합안과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 과목을 응시하도록 하는 완전 융합안이 제시되었는데, 후자로 기울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년 10월에 발표된 2017년도 대입제도 방안에서 현재는 문이과 구분을 유지하지만, 2021년 입시부터는 융합형 인재에 적합한 수능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부 조정은 있지만, 대체로 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 역량의 반영, 학습 경험의 질 개선 등과 같은 중요한 지향점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라 본다면, 문이과 통합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요 취지라는 점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공통과목을 기초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치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국·영·수·사·과(과학실험 포함)·한국사에 공통 과목이 도입되었고, 선택과목은 선택 수능을 염두에 둔 일반 선택과 진로·적성을 우선 고려하는 진로 선택으로 이원화하여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이수단위는

〈표 3〉 플로리다 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2014년도 9학년 입학생)

교과 영역	최소 단위	지정과목
영 어	4	영어 I, II, III, IV
수 학	4	대수학 I, 기하학
과 학	3	- 생물 I을 포함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갖는 과학 교과 2가지 - 필수 3과목 가운데 2과목 이상은 실험 포함
사 회	3	- 세계사 1단위 - 미국사 1단위 - 미국 정치(US Government) 0.5단위 - 경제 0.5단위
예술/발표와 토론/실용 미술	1	1단위
체 육	1	1단위

*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1단위(Credit)는 카네기 유닛(Carnegie Unit)에 따라 연간 120시간을 기준으로 함.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Students Entering Grade Nine in the 2014–2015 School Year—What Students and Parents Need to Know 참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86단위에서 94단위로 증가한 반면, 학교 자율과정은 반대로 94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금보다 학생 선택의 폭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증가한 것은 과학탐구실험 도입에 따른 2단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통 과목의 도입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통 과목을 지정하고 그 외에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교과 과정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플로리다 주 역시 다음과 같이 교과 영역에 따라 일종의 공통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 이후 유지되어 왔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거나,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 선택의 폭을 유의미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뜻일 뿐,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도록 운영될 수 있는가(혹은 운영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7차 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였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이 고교 선택과목을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구분하였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지향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10개 교과 영역별로 모두 도입되었으며, 대학입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은 융합형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6개 교과에 도입되었고, 대학 입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이 교양증진 및 실생활과 연계된 과목인 반면, 심화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분되었었다. 과목 구분의 근거에 비추어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국어생활, 인간사회와 환경, 생활과 과학 등)은 거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향점이나 취지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일 뿐, 어느 한 쪽이 더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7차 교육정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지향점이나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 방식과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

앞 절들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내재된 주요 문제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특징, 그것과 2009 개정 혹은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다소간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편성·운영 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주요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고교 교육과정은 문이과 양분, 제한된 선택과목, 학교 간 격차, 학습 경험의 질적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당성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 상당 부분은 향후 구체화될 편성·운영 방안과 지원방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통 과목의 성격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공통 과목의 성격을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도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 과목이 ‘필수’ 과목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공통 과목의 속진 혹은 면제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인지와 밀접히 이어져 있다. 속진은 단위수의 감축 허용을 의미하고, 면제는 바로 다음 수준의 수업을 듣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플로리다 주의 경우 대수학 I, 기하학, 미국사, 생물 I, 대수학 II의 경우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이 제기되는 이유는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가급적 최소로, 자율성·다양성의 이념을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통 과목에 포함된 특정 교과목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심화된 것이라면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통 과목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선택 교과 개설에 필요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유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학교의 설립 이념을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속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학교 간 차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개별 학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는 선행교육금지법과의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향후 수능과의 연계 방식,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공통 과목의 성격과 운영 방안(개설 시기 포함)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얼마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인지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문이과 양분 체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담아내 줄 수 있을 만큼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학교의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과정들 사이의 이동, 대학 진학과의 연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충분히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이수경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 가운데 후자를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충분히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된다면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제시된 선택과목들이 충분히 다양한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교과목의 개설,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에 의한 교과목 신설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과목의 다양화 여부는 대입 제도와의 밀접히 이어져 있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신 평가나 수능 체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선택 수능이 도입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일반 선택과 연계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이 유명무실해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택과목의 도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할 점은 학교 규모나 여건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등이다. 말하자면 선택과목의 다양성이나 학습 경험의 질적 수준에서 여건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사이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학생의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 과목 개설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형이 다른 고등학교들 사이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역시 주요 검토사항의 하나로 남아 있다. 예컨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의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라면 일반고에 적용되는 교육과정과는 편성·운영 방안이 달라야 할 것이다. 만약 공통 과목의 도입으로 이들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상의 융통성이 줄어들었다면 심화 과목에 80단위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의 규정이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 고려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율성의 목표는 학교 간 차등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점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지원 방안 혹은 후속 대책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외부(온라인 방송 강좌, 지역사회, 대학 등)에서 수강한 과목의 인정
- 내신 산출 및 평가 방식의 변화
- 개인별로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수강신청 및 성적 프로그램 개발
-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합강이나 공강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
- 과학탐구실험에 필요한 과학실과 실험기자재의 확보
-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과목 이수경로를 안내하고 상담해 줄 전문 인력의 확충
- 학교 간 순회교사 제도 확대
- 소인수 과목 개설에 필요한 보조 강사비 등 예산 지원
- 학교 간 교육과정 확대
- 학생부 전형 확대를 비롯한 고교-대학 연계 체제 개편

이들 후속 대책과 지원 방안은 발표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로서, 2015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2015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3a).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3b).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3c). 2017년도 대입제도 확정. 10월 25일 교육부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세종: 교육부.
- 김양분·김위정·임현정·남궁지영(2012).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김홍주·김용호·김철중(2013). 일반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민용성·백경선·한혜정·곽상훈·정치훈(20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병부(2013). 한국 고등학교의 위기와 자사고.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주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1탄 자료집(pp. 3-25). 2013년 5월 9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
- 위권일·성열관·김용섭·김학한·백병부·황여정·이동권(2011).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 배정방법 개편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금주(2012). 학교 다양화 정책 속에서 살펴본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 *중등교육연구*, 60(2), 415-439.
- 조호제·김대석(2013). 파트너십을 통한 고교 진로집중과정의 연계 운영 방안 고찰. *교육과정연구*, 31(2), 123-144.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a). *학교 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IV)*.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b). *2013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혜정(2012). 교과중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30(1), 99-124.
- 황규호·강태중·박하식·백경선·이영호·이현주·임유원·정광희·진동섭·한혜정·홍은숙(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Labaree, D. (1989). The American (High) school has failed its missions. *MSU Alumni Bulletin*, 7(1), 15-17.
- Seth, J. M.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H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orenson, W. C. (1994). Success and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1), 10-35.
- Tyack, D. & Cuban, L. (1995). *Tinkering toward: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붙임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
-----------	-----------------------

○ 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읽기 진로영어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예술 (음악/미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 경영, 해양문화와 기술 ,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 전문 교과 I

교과(군)	과 목			
과학계열	심화수학I	심화수학II	고급수학I	고급수학II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u>체육지도법</u>
	<u>체육 전공실기 기초</u>	<u>체육 전공실기 심화</u>	<u>체육 전공실기 응용</u>	
	스포츠경기 체력	<u>스포츠경기 실습</u>	<u>스포츠경기 분석</u>	
예술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조형	<u>매체미술</u>
	미술사	미술전공실기	미술이론	
	무용의 이해	<u>무용 기초 실기</u>	<u>무용과 물</u>	<u>무용과 매체</u>
	무용 전공 실기	<u>무용 음악 실습</u>	무용 감상과 비평	인무
	문학 개론	문장론	고전 문학 감상	현대 문학 감상
	<u>문에 창작 입문</u>	<u>시 창작</u>	<u>소설 창작</u>	<u>극 창작</u>
	<u>문학과 매체</u>			
	연극의 이해	무대 기술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연기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u>시나리오</u>	영화기술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사진 편집	디지털 사진 촬영
중급 촬영	암실 실기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계열	심화 영어I	심화 영어II	심화 영어 회화I	심화 영어 회화II
	심화 영어 독해I	심화 영어 독해II	심화 영어 작문I	심화 영어 작문II
	<u>전공 기초 독일어</u>	독일어 회화I	독일어 회화II	<u>독일어 독해와 작문I</u>
	<u>독일어 독해와 작문II</u>	독일어권 문화		
	<u>전공 기초 프랑스어</u>	프랑스어 회화I	프랑스어 회화II	<u>프랑스어 독해와 작문I</u>
	<u>프랑스어 독해와 작문II</u>	프랑스어권 문화		
	<u>전공 기초 스페인어</u>	스페인어 회화I	스페인어 회화II	<u>스페인어 독해와 작문I</u>
	<u>스페인어 독해와 작문II</u>	스페인어권 문화		
	<u>전공 기초 중국어</u>	중국어 회화I	중국어 회화II	<u>중국어 독해와 작문I</u>
	<u>중국어 독해와 작문II</u>	중국 문화		
	<u>전공 기초 일본어</u>	일본어 회화I	일본어 회화II	<u>일본어 독해와 작문I</u>
	<u>일본어 독해와 작문II</u>	일본 문화		
	<u>전공 기초 러시아어</u>	러시아어 회화I	러시아어 회화II	<u>러시아어 독해와 작문I</u>
	<u>러시아어 독해와 작문II</u>	러시아 문화		
	<u>전공 기초 아랍어</u>	아랍어 회화I	아랍어 회화II	<u>아랍어 독해와 작문I</u>
	<u>아랍어 독해와 작문II</u>	아랍 문화		
	<u>전공 기초 베트남어</u>	베트남어 회화I	베트남어 회화II	<u>베트남어 독해와 작문I</u>
<u>베트남어 독해와 작문II</u>	베트남 문화			
국제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u>세계문제의 미래사회</u>
	비교 문화	<u>사회탐구방법</u>	<u>한국사회의 이해</u>	국제법
	지역 이해	<u>현대세계의 변화</u>	사회과제연구	